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주면서 사는 즐거움과 보람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열심히 가꾼 자에게는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하느님께서 가꾼 자에게 주신다. 수확은 심고 가꾼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며 기쁨이다. 가꾼 자의 베푸는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 많은 기쁨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베풀고 전달할 것인가는 베푸는 자의 선택이다. 받는 자는 베푸는 자의 착한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받고 보답해야 하는데 사실은 받는 자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것이 유감이다. 가난한 시골 친척이 도시의 잘사는 친척에게 농촌 선물을 보내는데

택배로 도착한 선물이 착불로 되어 송료를 내면서 보내는 사람이 송료를 부담하지 안 했다고 반갑지 않게 생각한다. 베푸지 않은 사람은 베푸는 자의 심정을 모른다. 새들과 짐승들은 새끼를 낳아 먹이를 구해 먹여 기르면서 아낌없는 봉사와 희생을 하면서 새끼들을 도와주고 있다. 새끼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과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 가르쳐 주고 도와주면서, 변해가고 자라는 새끼들을 보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인간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교육하면서 자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

는 즐거움과 보람에 살고 있다. 인간의 즐거움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 삼락이라 한다. 교육 삼락은 아낌없이 주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이다. 사람들은 가진 자가 되기 위해 온갖 고생과 노력을 하지만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육 삼락에서 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교육 삼락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며, 준 것을 받은 자는 받은 것을 다시 주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 사회의 미덕이다. 보람 있는 삶이란 많은 것을 가

진 자가 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내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주고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이차적 목표이고 즐거움이며 보람이다.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진 부자는 일차적으로 성공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람 있게 주면서 즐거움을 느낄 것인가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는 일차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이차 목표는 실천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많은 사람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살다가 빈손으로 생을 마친 사람은 주면서 사는 즐거움과 보람에 살다 간 사람이 다. 우리 주변에는 가진 자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 자기만이 개발한 지식 정보와 기술을 가진 자들은 주는 즐거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퇴직하여 놓고 있는 많은 사람은 현직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진 전문적 지식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즐거움을 찾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나로부터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자식들이 부유하게 잘살 수 있을지 모르나 열 마리의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한 마리의 고기 잡는 방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준다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물리적인 재산보다도 무형의 지식정보가 더 값진 재산이며 이것들을 내가 죽기 전에 아낌없이 주면서 주는 즐거움과 보람에 산다면 노년층 사람들의 삶은 보람 있고 값있는 삶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은 내가 개발하고 쌓아온 성공 비결이다. 이것을 아낌없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상의 즐거움이며 보람이라고 본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빈손이 되기 때문에 빈손을 채우려는 생활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삶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될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일시적으로 가졌던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사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삶을 마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먼저 나를 도와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나를 도와야 하며 다음은 나와 가까운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크게는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것을 만들어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 없이 말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양육하고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돕는 효도가 부모 사랑이다. 우리는 주면서 사는 사랑을 실천하여 보람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해야

어느덧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 도처에는 울긋불긋한 오색빛깔의 찬란한 단풍이 자태를 뽐내고 있어 이를 구경하려는 많은 행락객들로 붐비고 있다. 특히, 우리 소방관서에 있어서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온다.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달을 불조심 강조

의 달로 지정하여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홍보콘텐츠·언론매체·캠페인 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 불조심 홍보물 설치 및 캠페인 전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운동 등이며, 국민과 함께 공감·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목표로 코로나

19에 의한 생활속 거리두기'비대면 중점'으로 소방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이상기온 및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난방용품 등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많은만큼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화재원인 중 불티, 아궁이, 응점, 화기취급 등 부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개인의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여부가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금년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은 '공묘전 당선작인'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먼저!'이다. 국민 개개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노력이 안전과 행복을 이루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속에서 안전을 실천하여 사고없는 겨울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창수/여수소방서장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